

민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이 승 섭*

국문초록

본 민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왕의 당나귀 귀가 이발사에 의해 발견되고, 그 비밀을 발설하지 못해 병이 난 이발사가 깊은 땅 구덩이에 비밀을 털어 놓고 흙으로 덮지만 그 자리에서 자라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비밀이 폭로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등장인물은 왕과 이발사 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전해 내려져 오는 이 민담은 우리나라에서도 경문왕 설화와 민담으로 전해져 오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다.

어떤 것이 의식화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인 것이 되는 경향으로 인해 진부해지기 때문에 경직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의식적인 삶이 경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때 무의식에 있는 정신적 사건들의 흐름과 접촉을 통한 지속적인 갱신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집단적 의식의 내용들 중 가장 중심적 상징인 왕은 이러한 갱신의 필요성에 훨씬 따르게 마련이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왕의 ‘당나귀 귀’는 삶의 흐름에서 잃어버린 근원적 감정과의 비합리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발사는 영적 변환과 관련된 상징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드러내는 신과 관련된 상징으로 왕이 ‘당나귀 귀’로 만물의 소리를 듣고 변환되어 하나이자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신의 뜻이었던 것이다.

한 개체의 정신적 총체이며 역설적으로 또한 전체 집단적 무의식의 조절 중심을 나타내는 자기는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 의

접수일 : 2023년 3월 31일 / 심사완료 : 2023년 6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6월 24일

*융학파분석가

Address for correspondence: Seungsub Lee, M.D., Ph.D., Jungian Analyst, 70 Naruteoro, Seocho-gu, Seoul 06526, Korea

Tel: +82-70-7690-4007, E-mail: seungsublee@gmail.com

식이 발달함에 따라 너무 멀리와 버려 잃어버린 인간의 근원적 층과 하나가 되어 변환될 것을 촉구하는 것 같다.

중심 단어 : 왕의 당나귀 귀; 본능; 이발사; 자기(Self); 변환.

들어가는 말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할 줄은 몰랐다. 분석심리학에 입문하면서 어린 시절 우리가 즐겨 읽고 들던 이야기들이 ‘왜 이야기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나의 비상한 관심을 끈 대목은 폰 프란츠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었다. “민담은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고유한 본능의 토대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¹⁾ “민담이 이야기될 때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해석 작업이 우리의 기분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충족감을 주며 인간의 무의식적인 본능의 층과 더불어 화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²⁾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소진된 에너지를 되찾고, 활기찬 충족감으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잠자고 있던 그 바람은 집단적 무의식을 경험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분석을 온 내담자의 꿈과 그 꿈에 이어진 나의 꿈을 통해서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민담은 “집단적 무의식의 정신과정을 가장 순수하고 단순하게 표현” 하기 때문에, “원형을 가장 간결하게 정확한 형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원형 상들은 “보편적 집단정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적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인간 정신의 기본적 정형을 보다 분명하게 반영한다.”³⁾ ‘집단적 무의식’은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정신구조로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획득된 적이 없고 유전되는 인류의 비개인적이며 보편적인 특성을 갖는데 그것은 선제하는 형식인 원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이차적으로만 의식될 수 있고 의식의 내용에 뚜렷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⁴⁾ 우리는 민담 속에서 집단적

1)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p61.

2) 이부영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55.

3)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앞의 책, pp11-12.

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p156-157.

무의식의 원형, 즉 인간의 전형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모티브들을 찾아낼 수 있다. C.G. 융은 그 내용들이 심리학적 경험으로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남아있는 태곳적 인류의 잔여들로 햇빛과 공기처럼 모든 인간에게 선사된 것으로 모든 분화와 진보 뒤에 남겨진 공유재산”이라고 하였다.⁵⁾ 보편적인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 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민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해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내가 어린 시절 접했던 이야기 중 하나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 내용을 떠올리며 크게 공감했던 기억만 남아있다. 내가 왜 그렇게 공감했었는지 일일이 그 상황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나의 깊은 무의식의 층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민담은 스티스 톰슨의 설화 유형 AT 782번에 ‘마이다스와 당나귀 귀’로 등재되어 있다. 1983년 조희웅이 《한국설화유형》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소개하였는데,⁶⁾ 그에 따르면 AT 782번 ‘마이다스와 당나귀 귀’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고찰은 1911년 크루크(Crooke W)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어서 레만-니체, 바스머에 의해 자료들이 보충되었다고 한다. 스코비(Scobie A;1977)는 우리나라의 《삼국 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당나귀 귀 임금’인 경문왕 설화를 세계학회에 소개하였는데,⁷⁾ AT 782설화가 인도 이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크루크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까지 수집된 동방의 이본으로는 최고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유형이 아직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인도, 몽고, 키르키즈, 한국 등의 예로 미루어 이들 지역에서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⁸⁾

민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국구비문학대계, 1-4,⁹⁾ 가능동 설화 37을 선택하였다. 이 민담은 1980년 8월

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6): C.G. 융 기본저작집 제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p21.

6) 조희웅 (1996):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서울, pp328-353.

7) Scobie A (1977): “A Korean Midas Tale,” *Folklore*, 88(1), pp88-90.

8) 조희웅 (1996): 앞의 책, p336.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역음) (1980-1989): 《한국구비문학대계》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pp115-118.

28일 조희웅, 김연실, 유지현 조사하였고, 구연자는 이항훈이었다(남자. 71세). 이 민담을 선택한 이유는 화자의 구수한 말솜씨와 구체적인 묘사가 돋보였고, 유화의 전형적인 모티브들이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국 천자가 귀가 당나귀가치 생긴 사람이 천자가 낳았다 거든, 그러니께 그 걸 남이 보면 안 되잖으니까니, 천자가 그기 뭐 귀가 당나귀 귀거치 생겼으니, 이제 당나귀 자손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아냐? 그러니께 그걸 못 보게 아주 관(冠)을 크게 이룩해 높게 맨들어 가지고, [손으로 모자를 머리 위에 쓰는 표시를 하며] 귀까지 가리워 씨게 해 가지구 씨구 있댔다거든, 그러니깐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신하들을..., 머리를 그때는-옛날에는 우리나라 모다 상투를 틀어 댔지만, 상투 틀적이니까니, 몇 일에 한 번씩 이제 빗거든, 그런데 머리를 자기가 안 빗구, 신하를 시켜서, 신하가 빗겨 주게 때련이라 거든, 그러니깐 머리 한 번 빗기므는, 머리 빗기러 들어간 사람은 사형 선고야. 머리 빗기구 나면, 머리 빗기구 난 다음에 그 말 퍼뜨릴까봐 직이구 말거든. 그러니 얼마를 직였는지 모르지. 그러나 냉중에는 안 되겠거든. 그리하다 보니까니, 그런단 뭐-충신은 다 죽구, 뭐 남을 게 없겠거든. 하니께 그럴 필요없이 그 걸 매번 머리 빗기군 한 사람씩 죽여선 안 되겠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을 어드메 가서 하지 말라고만 했으면 될 거 아니냐?”

하구서, 그때는 직이지는 안하고, 그 본 말을 절대로 못하게 했거든.

“말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깐 못하구 있는데, 한 신하가 이제 머리를 빗기구서 보니까니 흥측시럽구,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놈은 죽을 지경이란 말야. 그런데 하든-말하든 죽겠으니께

못 하구, 아 그놈으 게 병이 되어가지고서 앓고 있는단 말야. 하고픈 말 못해서, 그래 죽게 되어가니까니, 아들덜이 자꾸 대라고 그라니... 뭐 아무 의사를 갖다 대도 못 고치구, 의사들에 예기가,

“이거는 무신 근심으로 난 탈이기 때문에, 약으로는 못 고칠기”라고 그라니까, 아들덜이 자꾸,

“어째서 그러느냐?”고,

“대라,”고, 그러니까니,

“말을 할 수 없으니까니, 나를 어드메 깊은 산중에 사람덜 안 댕기는 산중으로

날 데려가 다고. 그래고 뭐 땅 팔 기구를, 팽이 쇠스랑 다 가지고 가자.”고 그랬거든. 그래 깊은 산중으로 사람 안 댕이는데루 데리고 갔드란 말야. 가니까니 구텡이를 사람 들어가 앉어도 안 벌 정도로 깊이 파라고 했거든. 그래,

“다 파 놓았다.”고 그라니께,

“나 거기다 여어 놔 다고. 내려놓고 너희들은 다 절루 가라. 일루덜 좀 한참 가 있다가, 나 부를 적이 오너라“

했거든. 그러니깐 아들이 다 피하서 어드메 가 있단 말야. 저 혼자서 거기서 말하는 거야. 땅에다 대구서.

“대국 천자 호필연의 귀는 당나귀 귀야요.”

[조사자;호필연?] 호필련. 호필연. 호필연이야. 이름이-성은 호가고, 이름은 필연이디, 천자 됐거든. 그루 하구선 아들덜 오라고 불르니께, 왔단 말야.

“나 이제 내 놓고, 이거 다 도로 메워라.”

다 메우고서 왔단 말야. 그런데 그 답에 얼마 있다가, 그 놈으 데 그 참대가 어둑해져 나왔다가거든, 봤는 메워 논 자리에서, 그 요 정도(손가락으로 굽기를 표시) 아주 매끈하게 올라왔단 말야. 근데 거 사람이 잘 안땡이는 텐데, 어둑해서 어떤 사람이 갔다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단소(短簫)를 좋아하고, 단소를 꽤나 부는 사람이던 모양이야. 그 잘랐단 말야. 잘라가지고 와서,

“이 놈 단소를 파서 불면 좋겠다. 이거 똑 알맞다.”

잘라가지고 단소를 파 가지고 불었단 말야. 부니께, 아 자기가 하고픈 늬에 곡이 나오지를 안하구,

“대국 천자 호천자, 호필연 으 귀는 당땅나귀 귀예요.”하고 나온단 말야. 하니께 이게 분직은 그런 소리가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이놈이 말이 차츰차츰 말이 퍼지기 시작해서, 궁중에까지 들었단 말야. 그래,

“아무 데 있는 사람이 단소를 가지고 땡이메 부는데, 대국 천자 호필연의 귀는 당땅나귀 귀야 하고 그렇게 소리가 나온다.”구.

“그러면 불러 덜여라.” 하니깐, 잡아들였단 말야. 잡아들이니까니,

“와 불라.”고 그라니께, 부는데 보니께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 그 사름을 뭇척일 것이지. 직일려고 가뒤놔 뒀는데,

“그 출처를 대라.”고 그라니께,

“어디서 났나?” 하니까,

“아무데 아무 산에서 베 왔다.”고 하니깐,
자기가 가서 땅 파구 말한 데 거기서 배완게 분명하거든. 하니께 그때는 천
자보고 예기 했거든.

“그 사람 죽일 게 아니고, 날 죽여 달라.”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실토하지 못해서 병이 되어가지고서 앓
다가, 다른 사람덜 듣는데는 못하고, 산에 가서 땅을 파고서 거기 들어가서 나
혼자서 말을 했는데, 거기서 참대가 나온 놈이기, 그 말 행기 거기가 축음(蓄
音)되었다가, 그렇게 되안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땅궁이에다가 말해 났던 놈이기 참대가 나왔는데, 거게가 축음이
될까? 그것두 알 수 없는 예기지 뭐.]

“그래 그 사람 죽일 게 아니고 나를 죽여주소. 나 때문에 그 소리가 터졌으니
까니 나를 죽여주소.“

그래 그러니까,

“이런 충신을 죽일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말했지마는 그 사
람 죽거나 말거나 내 버려 둘 텐데, 자기를 죽여 달라고 하니 이런 충신은 없
다. 하니께 이 사람두 죽이지 말고, 단소 부른 사람도 죽이지 말고 다 놓아주
라.“고 했어. 그럭해서 안 죽구 살아났다는 그런 예기가 있어.

유 화

1. ‘당나귀 귀만한 귀를 가진 왕’

임석재전집, 6; 충청북도, 충청남도편, 1969년 채록.¹⁰⁾

옛날에 어떤 왕이 “당나귀 귀”만한 큰 귀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이런 귀 가
진 것을 칭피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서 늘 두건을 써서 귀를 내놓지 않아 심지어
왕비까지도 왕의 귀가 당나귀 귀만한 것을 몰랐다. 왕이 머리를 감고 새로 상
투를 쪼고 나면 상투를 쪼는 사람을 죽여 버렸기 때문에 왕의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왕의 상투를 쪼러 대궐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죽어나온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퍼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10) 임석재 (1990): 《한국구전설화》, 임석재전집 6, 충청북도 충청남도 편. 평민사. pp83-84.

왕의 상투 쪼로 불러 들어갈까 봐 겁을 먹고 있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왕의 상투를 쪼라고 왕의 두건을 벗기니 귀가 당나귀 귀만해서 깜작 놀랐다. 왕이 이런 귀를 남한테 뵈 것을 창피하고 부끄러워 하는 것을 보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상투 쪼로 들어온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유를 알았다. 자기도 왕의 상투를 다 쪼고 나면 직일 것을 알아채렸다.

이 사람은 왕의 상투를 다 쪼고 나서 왕한테 말했다. “소인에게는 노모 한 분 계시는데 노모는 소인만 의지하고 사는데 노모를 죽기 전에 한 번 만나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왕은 노모를 만나보고 죽겠다는 말에는 어쩔 수 없었던지 “그래라 만나보고 오너라. 그런데 내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궐을 나와서 노모를 만나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산속 고목나무 속이 빈 흠통 속에서 밤을 세게 되었다.

깊은 산중의 밤은 죽은 듯이 고요한데 이런 데서 밤새기를 기다리자니 무척 지루했다. 더욱이 말벗이라고는 없으니 더욱 적적하고 답답했다. 지가 저한테 말이라도 붙여서 이 답답증을 풀을 심정이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고 중얼댔다. 이려고 말하고서 아플사 이 말을 해서는 안되는데 하고 뉘우쳤지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서 상관없다 하고 마음을 달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목나무 흠통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멀리 퍼지고 산중에 뻑뻑이 들어선 나무들이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날이 새서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왔다. 고목 흠통에서랑 나무들이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소리를 내고 있어서 나무꾼들은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고 노래처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사실이 온 백성에게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의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것을 왕의 흥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널리 들어서 좋은 정사를 할려고 그런 큰 귀를 가지신 거라 하고 왕을 더욱더 우러러보고 더욱더 위하게 되었다. 왕은 자기의 귀가 너무 큰 것을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백성들이 되려 왕을 더 우러러보게 된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상투 쪼 사람이 돌아왔을 때 왕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

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2) ‘경문대왕의 귀는 당나귀 귀’¹¹⁾

왕은 즉위한 후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자랐다. 왕후와 궁인들은 모두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복두장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토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복두장이 죽을 때가 되자 도림사 대숲 가운데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나무를 향해 외쳤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왕이 그것을 싫어하여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는 산수유를 심었는데 바람이 불면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3) ‘마이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¹²⁾

아폴론과 판 신(또는 마르시아스) 사이에 벌어진 음악 경연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심판관이었던 트폴로스가 아폴론의 승리를 선언하자 마이다스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아폴론은 마이다스의 어리석음을 탓하여 그에게 당나귀의 귀를 주었다. 마이다스는 프리기아 모자를 씌으로써 당나귀의 귀를 가진 수치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나, 이발사에게만은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이다스는 이발사에게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발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땅을 파고 그 속에 비밀을 털어놓은 뒤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에 갈대가 자라나, 바람이 불 때 마다 그 갈대는 전 세계를 향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속삭였던 것이다.

4) ‘알렉산더 대왕의 귀’¹³⁾

알렉산더는 귀가 매우 컸던 나머지 황금 왕관 밑으로 자신의 귀를 숨기고 있었다고 한다. 알렉산더의 머리를 잘랐던 노예만이 그의 비밀을 알았지만, 노예가 죽자 다른 노예가 알렉산더의 머리를 잘라야 했다. 새로운 이발사가 도착하

11) 일연, 김원중(역) (2007): 《삼국유사》, 민음사, 서울, pp193-194.

12) Grant M, Hazel J, 김진옥(역) (1993):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범우사, 서울, p119-120.

13) Curtis VS, 임웅(역) (2013): 《페르시아 신화-대영박물관 신화 총서》, 범우사, 서울, pp126-127.

자 알렉산더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 이발사의 귀를 잘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깜짝 놀란 가엾은 노예 이발사는 실제로 말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린다.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짐 때문에 결국 그는 아프게 되고 어느 날 왕궁을 떠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들판으로 나가게 된다. 거기에서 그는 깊게 파인 우물을 발견하고 머리를 안에 집어넣어 우물 깊숙이 세계의 왕 알렉산더가 기다란 귀를 갖고 있다고 외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까지의 고통에서 벗어나 왕궁으로 돌아온다. 이발사 노예가 지나갔던 바로 그 길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대나무 가지 하나가 우물 안에서 나타난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양치기가 플루트를 만들기 위해 그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간다.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그 들판을 지나가던 어느 날 양치기의 플루트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기다란 귀에 관한 노래를 듣게 된다. 알렉산더로부터 질문을 받은 양치기는 그가 어떻게 그 대나무 가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플루트로 만들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알렉산더는 아무래도 이발사 노예가 비밀을 폭로했을 것이라고 눈치채고 가엾은 노예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이발사 노예는 혼자서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견디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을 안전하게 묻어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알렉산더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을 강제로 지키게 할 수는 없으며 결국에 비밀이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발사 노예를 용서해 준다.

유화의 전형적인 모티브 비교

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다.

본 유화의 왕은 대국 천자인데 귀가 당나귀 귀같이 생긴 사람이다. 경문왕은 즉위한 후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자랐다. 경문왕 설화의 민간전승에서는 당나귀 귀가 아닌 뿔을 가진 임금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¹⁴⁾ 마이다스 왕은 아폴론이 마이다스의 어리석음을 탓하여 그에게 당나귀의 귀를 주었다. 알렉산더 왕은 원래 귀가 매우 컸다. 이본 중에는 말 귀, 염소 귀, 황소 귀, 그리고 귀가 아닌 뿔을 가진 왕도 있다.

14) 조희웅 (1996): 같은 책, p345.

2) 임금님은 당나귀 귀를 수치스럽게 여겨 관(冠)으로 감추었지만 이발사가 당나귀 귀를 발견하게 된다. 임금님은 기이한 신체(귀)상의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 이발사를 죽이거나, 죽인다고 위협을 한다-유화에 따라 관(冠)은 두건(頭巾), 프리기아 모자, 황금 왕관으로, 이발사는 머리 빗기는 사람, 신하, 노예로, 당나귀 귀는 말귀, 큰 귀, 뿔로 표현된다.

3) 이발사는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병이 되어 깊은 산 중에 들어가 구덩이를 파고 비밀을 털어놓은 후 흙으로 메운다. 혹은, 대숲 가운데 들어가 대나무를 향해, 혹은 들판의 깊게 파인 우물에 비밀을 털어놓은 후 병이 낫는다.

4) 그 자리에 갈대, 혹은 대나무가 자라나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난다. 혹은 그 자리를 지나던 사람이 자라난 갈대 혹은 대나무를 발견하고 피리를 만들어 부니, 음악 대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서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비밀이 폭로된다.

5) 임금님은 자기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여겼는데, 자신의 당나귀 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죽임을 당한 전임자들과 달리 본 유화의 이발사는 충신으로 인정을 받고 살게 된다. 유화 1)에서는 이발사가 큰 상을 받는다. 유화에 따라 이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경문대왕, 마이다스 왕).

분석심리학적 해석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민담을 제시부, 전개부, 절정, 해소부로 정리해 보았다.

1) 제시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은 이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 감추고 있었지만, 이발사가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된다. 처음 등장인물은 왕과 이발사다. 임금님의 수치인 당나귀 귀를 이발사는 비밀에 부쳐야 된다. 시작과 끝의 등장인물의 숫자나 구성에는 변함이 없다.

2) 전개부: 임금님은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발사를 죽이거나 위협을 한다. 이발사는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병이 되어, 자연의 깊은 산 중에 들어가, 구덩이를 파고 비밀을 털어놓은 후, 병이 낫는다.

3) 절정부: 비밀을 털어놓은 자리에서 갈대, 혹은 대나무가 자라나 바람에

흔들리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난다. 임금님의 비밀은 폭로되고, 이발사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위기에 처한다.

4) 해소부: 임금님은 더이상 자신의 당나귀 귀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이발사는 살아남게 된다.

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다

본 민담은 ‘대국 천자가 귀가 당나귀가치 생긴 사람이 천자가 낫뎠다거든’으로 시작된다. ‘대국 천자’란 큰 나라에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즉 하늘이 내린 사람이 큰 나라의 왕이 된 것이다. 민담에서 왕은 원래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나, 즉위 후 당나귀 귀가 되거나(경문왕), 마이다스 왕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인한 징벌로 당나귀 귀를 갖게 된다. 이로 미루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왕의 직책과 관련된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 싫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것인 것 같다. 그러나 왕이 동물의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보통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담에서 왕은 종교적 제약이나 정치적 제도 등 집단의식의 지배원리를 표상한다. 그러므로 왕은 대개 “집단적 의식 안에서 이해되는 가시적 측면에서의 자기(Self) 상징”으로 생각되는데 집단적 의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식도 계속해서 변하는 풍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내면세계에 적응해야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¹⁵⁾ “어떤 것이 오래전부터 의식화되면 필연적으로 진부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인 삶이 경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때, 무의식에 있는 정신적인 사건들의 흐름과의 접촉을 통한 지속적인 갱신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리고 집단적 의식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상징인 왕은 이러한 갱신의 필요성이 훨씬 따르게 된다”. 그 이유는 종교적 교의와 정치적 제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앞서 나가는 삶의 흐름과의 비합리적 접촉을 잃어버리고,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⁶⁾ 과거 많은 원주민 사회에서는 왕의 건강과 생식력이 여성과 가족의 생식력 외에 전 종족의 안녕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성불능이 되거나 병들면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왕은 상징적으로 “그 민족 전체의 정신과 육체

15) Von Franz ML, 박영선(역) (2020): 《민담 속의 여성성》, 한국융연구원, 서울, p129.

16)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p72.

적인 안정이 달려있는 신적 원리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으로 왕은 “자기(Self)의 상징으로 간주하게 하는 많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정신체계의 중심으로 개인의 안정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¹⁷⁾ 민담에서 왕이 늙어 병에 걸리거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거나 혹은 숲(깊은 무의식)에서 길을 잃는 상황 등이 제시되는데, 집단적 의식의 지배원리가 막혀 더이상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하는 난관에 처하는 고전적인 상황이 제시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길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민담에서 왕이 봉착하는 난관은 위에 제시한 어려움들이 아니고, 왕의 귀가 사람의 귀가 아닌 비천한 당나귀 귀라는 것이 문제로 제시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그 전에 보통 귀를 가진 천자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었고, 당나귀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들어야만 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 같다는 추론 하에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확충의 방법¹⁸⁾을 통하여 본 민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 형상을 한 상징들은 “인간적, 심리적 요소들의 투사상”으로,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을 나타내며”¹⁹⁾ 이는 무의식적인 리비도의 발현들과 관계 된다.²⁰⁾ 융의 제자 바바라 한나는 동물들이 인간 본능의 다양한 면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특히 본능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시대에는 동물 상징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본능과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꿈에 동물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현대인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동물 모티프는 전 세계의 신화와 민담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²¹⁾ 원시인들이 동물을 숭고한 존재로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융도 동물이 인간 정신의 신성한 면(divine side)이라고 느꼈다. 동물들은-인간보다 더-자연, 그 자체의 “비밀스러운 질서(secret order)”와 접촉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절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살기 때문이

17)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pp69-70.

18) 확충의 방법이란 어떤 상(像)이나 행위에 대한 인류의 오랜 연상을 수집하고 비교하면서 공통의 뜻을 발견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분석심리학적 접근방법이다.

이부영 (2011)b: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28-29.

19)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p50-51.

20)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6):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24.

21) Hannah B (2006):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Wilmette, Illinois, pvii.

다. 인간과 대조적으로, 동물들은 선악을 능가하는 스스로 내면의 법칙을 따르는 살아있는 존재이다.²²⁾ 폰 프란츠도 가장 위대한 의식은 “동물로의 회귀, 그러나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회귀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²³⁾

용에 의하면, 개성화 과정은 진행될수록 점차 어려워진다. 개성화 과정의 초기와 달리 작은 편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개성화 과정에서 이탈할 때, 동물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길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의식에 비해 동물적 본능은 더 민감한 도구(more sensitive instrument)”이다. “개성화 과정이 진행되어 멀리 간다는 것(to go far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은 “초인간적인 과제(a superhuman task)”인데, 연금술사들이 말한 바와 같이 “신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²⁴⁾ 동물은 사람보다 정확한 안내자이기 때문에, 전체성에 도달하는 것은 의식에 내면의 소리, 민감한 도구인 동물적 본능을 포함시킴으로 가능할 것이다.

왕의 당나귀 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나귀에 대해 살펴보겠다.

당나귀는 말과에 속하는 가축으로 나귀라고도 한다. 학명은 *Equus asinus* 이다.²⁵⁾

당나귀는 변하지 않았지만, 당나귀에 관한 인간의 생각은 시대와 지역에 따른 문화, 종교에 따라 변천되어왔기 때문에 매우 혼합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구문화에서 유래된 당나귀에 대한 모순된 사고방식은 10,00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당나귀의 가축화 이래 종종 인간성에 비유되어 조롱감이 되어왔다.²⁶⁾ 이러한 모순된 사고방식은 그리스-로마와 유대-기독교라는 두 개념에서 유래한다. 호머, 이솝, 아풀레우스는 당나귀를 비열하고, 완고한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이솝 우화에 여치의 울음소리를 흉모한 어리석은 당나귀가 여치와 같은 소리를 내려고 여치처럼 이슬만 먹기로 한 후,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다.²⁷⁾ 반면 당나귀는 주인이 만만하게 보이면, 일

22) Hannah B (2006): 같은 책, viii.

23) Hannah B (2006): 같은 책, 같은 페이지. The greatest consciousness, she once said, “is like a return to the animal, but on a higher level.”

24) Hannah B (2006): 같은 책, p66.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병휘: ‘당나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26) Bough J (2011): “The Mirror has two faces: Contradictory reflections of Donkeys in western Literature from Lucius to Balthazar”, *Animals* 2011, 1(1), p56.

27)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서울. p138.

부러 낮은 처마 밑에 들어가서 주인의 머리가 그 처마 끝이나 지붕 서까래에 부딪히게 한다.²⁸⁾ 성서에서 당나귀는 마리아, 예수의 탄생, 당나귀를 탄 예수와 관련된다. 당나귀는 신(神)과 관련된 상징성이 많은 동물로, 여호와와 쌍둥이 아들로 간주 되는 그리스도와 사탄이라는 양면 가치, 즉 이중성을 상징한다.²⁹⁾ 당나귀는 혹사를 당하며, 고통스럽게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이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와 흡사한 모습으로, 예수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에 의해 강조된다. 당나귀의 대단한 힘과 인내는 먹을 것과 보살핌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짐을 지우는데 중요한 짐승이 되었다. 비천한 당나귀는 고생으로 지친 단조로운 삶을 대변한다.³⁰⁾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당나귀’³¹⁾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당나귀가 특별히 영적인 세계와 관련됨을 암시한다. 신은 당나귀를 통해 발람의 잘못된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당나귀는 어리석지 않은 존재이며, 오히려 지혜롭게 묘사된다.

당나귀에 대한 혼합된 상징을 살피기 위해 “동키(Donkey)”의 저자 바우(Bough J)의 설명을 들어 보자. 고대 이집트 왕국의 초기에 동물들은 이집트인의 삶이었다. 이집트 신화에서 신성함과 세속적인 것이 연결되었고, 동물들의 종교적 중요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잘 대우를 받았고 존중되었으며 인간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았다. 동물에 관계되는 것들은 칭송을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신성과 연결되었다. 당나귀는 원래 거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갖는 홀(笏)의 끝에서 돌아나는 두 개의 깃털인 당나귀의 귀가 왕권의 상징이었다. 귀에 대한 표현은 왕의 신성한 힘의 원형이 되었다. 그것들은 상징의 힘을 형성했으며, 모든 힘은 강력한 사막의 신인 세트(Seth)로부터 유래된다는 증표로 기억되었다.³²⁾ 위의 설명으로 미루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당나귀가 거룩한 동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당나귀의 귀가 왕이 갖는 홀(笏)의 상징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나귀를 존중하던 고대 이집트 왕국은, 히소스(Hyksos)의 침범으로 분열되

2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6): 같은 책, p138.

2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서울, p140.

30) Bough J (2011): 같은 잡지, pp57-58.

31) 대한성서공회 (1978): 《성경전서》, 민수기 22: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32) Bough J (2011): *Donkey*, Reaktion Books LTD, London, p62.

어 특히 히브리인과 그들의 당나귀들은 이집트인들에 의해 노예로 사용되었다. 당나귀가 노예계급과 관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트와의 상징적 관계는 새로운 신화들이 세트에 관련된 손상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그는 간혹 당나귀 머리로 묘사되거나, 성적인 힘은 특히 당나귀의 곤두선 꼬리와 귀로 상징되었다. 한때 강력한 사막의 신으로 숭상되던 세트는 은혜로부터 멀어졌다. 그는 어둠의 세력, 폭풍과 혼돈과 악의 신으로 변환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여신 이시스는 그의 남편인 오시리스를 죽인 세트를 모신 당나귀를 특히 미워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은 후에 세트를 사악한 타이폰(Typhon)과 연결시킴으로서 당나귀는 악마의 세력과 관련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당나귀가 신성한 지위 대신, 본격적으로 어둠과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이유가 확실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 왕국 후기에 시작된 당나귀의 데몬화(demonization)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적 상징으로서의 당나귀는 미노아 크레타 예술에서 처음으로 묘사되었는데, 미노아 문화에 대한 이집트의 영향이 큰 것 때문에 보이며 세트와 이집트인들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³³⁾ 당나귀는 미노아 예술품에서 포도와 포도주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미노아 예술품에서 발견되는 당나귀 머리의 데몬은 그리스 문화에서 거대한 음경을 갖는 반 인간, 반 당나귀로 묘사되는데 역사학자 불리에트(Bulliet RW)³⁴⁾는 이를 실레누스의 선조라고 주장한다. 후에 디오니소스 신의 시종 실레누스라고 불리었으며, 발기된 음경을 갖는 뚱뚱하고 술 취한 노인이 당나귀를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당나귀가 포도나무의 재배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큰 음경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스 다산의 신인 프리아푸스(Priapus) 숭배는 디오니소스의 것과 비슷한데, 프리아푸스는 종종 당나귀로 묘사된다.³⁵⁾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펴보면 실레누스는 디오니소스의 시종이 아니라 디오니소스 신이 야기던 스승이다. 때로는 술 취한 노인으로, 때로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묘사되는데, 당나귀는 실레누스를 태우고 다니던 동물이다.

33) Bough J (2011): 같은 책, p66.

34) <https://Columbia.academia.edu>

*Richard Bulliet, Faculty member, specialties are history of the Middle East, Islamic studies, history of human-animal relations, history of transportation.

35) Bough J (2011): 같은 책, p67.

당나귀는 일부 사막에 사는 부족의 토렘이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셈족은 사막에서 생존하는데 잘 적응하는 당나귀를 토렘으로 숭배했다고 한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후예들(오늘날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나르는 데 당나귀를 이용하였다-중략-초기 유목민들 중 이스라엘인들의 조상은 가나안의 관례에 따라 세트(Seth)와 그의 동물을 숭배하지 않았다. 당나귀를 지각하는 방법은 종교적으로 깊은 전통과 관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가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당나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에 토렘으로 숭배되기도 한 반면, 종교적인 배경에 의해 숭배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두운 사악함, 술에 취함, 성적인 상징적 묘사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는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 상징으로 이어진다. 이로 미루어 당나귀에 대한 양가적 상징을 알 수 있다. 당나귀는 기독교를 로마전통과 연결한다. 초기 기독교는 이집트 종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후 수 세기 동안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전통에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가나안, 유대, 기독교, 이슬람 전통의 융합은 당나귀의 신성한 아우라가 이 지역의 다른 가축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⁶⁾ “민담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신성(神性)과 통한다.”³⁷⁾라는 표현이 마음에 다가오는 대목이다.

로마시대 최초의 소설인 ‘황금 당나귀’는³⁸⁾ 주인공 루키우스가 우연한 기회에 마법에 의한 실수로 당나귀로 변환되면서 겪는 이런저런 이야기이다. 외견상 주인공은 당나귀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 인간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당나귀가 아닌 인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보면 루키우스가 당나귀로 변신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을 당나귀, 또는 멍청한 당나귀의 원리가 덮은 것으로, 인간 안에 있는 신성(神性)이 성욕과 온갖 잔인한 충동과 함께 그림자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⁹⁾ 당나귀가 인간적인 것을 덮는다. 당나귀로의 변환은 절망적인 자아가 깊은 우울로 인해 방향을 잃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⁰⁾ 의식의 일방성이 내적 인격을 도

36) Bough J (2011): 같은 책, 같은 쪽.

37) 이유경 (2012): “한국 민담에 나타난 대극의 함의”, 《심성연구》, 27(1,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p1.

38) 루키우스 아플레이우스, 송병선(역) (1966): 《황금당나귀》, 시와 사회.

39) Von Franz ML (1992): *The Golden Ass of Apuleius*, Shambhala, p203.

40) Von Franz ML (1992): 같은 책, p64.

외시한 결과 무의식의 대상작용으로 일시적인 의식의 혼란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통은 의식의 일방성을 지양하고, 소외된 전체 인격의 내적 중심인 자기(Self)를 찾음으로 내적 성장과 집중(centralizaion)의 정신적 과정(개성화 과정)⁴¹⁾으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종교와 신화에서 자기(Self)는 ‘얻기 어려운 보물’의 이미지나 만달라, 신의 정신 내적인 발현(inner psychic manifestation of the godhead)의 이미지로 상징화된다.⁴²⁾ 주인공 루키우스가 당나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체 정신의 여성적 형태의 자기 상징인 이시스 여신이 없는 삶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⁴³⁾ 당나귀에서 벗어나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면의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감정 경험, 내면의 변환을 촉진하는 여성 원리인 이시스를 통해 당나귀 상태로 상징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더 높은 내적인 인격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주로 프랑스에서 벌어진 당나귀 축제는 당시 무해한 축제로 여겨졌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축제는 당나귀 행렬이 교회로 들어가고, 이어지는 미사의 각 부분의 말미에 신도들이 마치 당나귀 같은 소리를 낸다. 고대로부터 유대인의 신은 통속적으로 당나귀와 결부되어 그리스도에게 확대되어 해석되었기 때문에 당나귀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기이한 관습을 없애기 위해 주교들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령(auctoritas supremi Senatus)”에 의해 역제가 되어야 했다.⁴⁵⁾ 동물의 신성과 왕권이 구별되지 않았던 과거 고대의 관습은 교회와 절대왕권의 권위주의가 강조되기 시작되면서 억압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무의식에 억압된 당나귀의 신성과 본능적 속성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민담을 통해 보상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당나귀는 말과(Equine)에서 가장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사막에서 먼 길을 이동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갖는 길고 예민한 귀로 소통을 한다. 바우(Bough J)는 당나귀의 귀가 가장 월등한 감성과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⁶⁾ 월

41) Von Franz ML (1990):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p1.

42) Von Franz ML (1990): 같은 책, 같은 페이지.

43) Von Franz ML (1992): 같은 책, p4.

44) Von Franz ML (1992): 같은 책, p204.

45) Radin P (1972):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pp198-199.

46) Bough J (2011): *Donkey*, Reaktion Books LTD, London, p36.

등한 감성과 깊은 감정은 분석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꿈꾼 이가 꿈의 상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적해석 만으로는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화 중 임금님의 귀가 큰 귀인 경우도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귀는 매우 컸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살았다고 한다. 불상은 모두 긴 귀를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 크거나, 길거나, 이상하게 생긴 귀는 비범한 청력을 암시한다. 초기 불교시대에 부처의 모든 제자들은 “듣는 사람(hearer)”이라고 불리었다. 위대한 불교 사상가인 아상가(Asangar)에 의하면, 귀를 기울여 들을 경우, 자연적인 통찰(prajna, 의식)을 넘어, 심오한 진실로부터 오는 것(insight consisting of hearing, srutamayi-prajana)을 듣고,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⁴⁷⁾

알렉산더 대왕의 귀가 큰 귀라는 유화 외에, 아르메니아 지역의 민담에 알렉산더 왕에게 뿔(유화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개의 뿔)이 있다. 경문 왕 설화의 민간전승은, 당나귀 귀가 아닌 뿔을 가진 임금의 이야기이다.⁴⁸⁾ 폰 프란츠는 뿔이 남근의 상징으로, 자기(the Self)의 창조적인 힘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⁴⁹⁾

유화에 따라 임금님의 귀가 말 귀의 예가 다수 발견된다. 크루크(Crooke W)의 인용에 의하면 썸족들은 말과 당나귀 둘 다 신성한 동물로 간주했다고 한다.⁵⁰⁾ 그러나 당나귀가 학대를 당해온 것과 달리,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호머의 ‘일리아드’에 의하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머리를 높이 들고 갈기를 휘날리며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말과 비교된다. 반면 그리스의 영웅 아이아스(Ajax)는 트로이와의 전투에서 막대기로 맞으면서도 곡물을 먹느라 고개를 들지 않는 당나귀로 비교된다. 우월하고 자유로운 말과 달리, 당나귀는 탐욕스럽고, 완고하며, 평범하다.⁵¹⁾ 이러한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유지되어왔지만, 해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47) Elder GR (1996): *The Body-An Encyclopedia of Archetypal Symbolism*, Shambhala, Boston & London, p186.

48) 조희웅 (1996): 같은 책, p345.

49) Von Franz ML (1992): 같은 책, p124.

50) Crooke W (1911): “King Midas and His Ass’s Ears”, *Folklore*, vol.22, No 2, p200.

*Robertson Smith, op, cit., pp468 et seq., 293; kinship and Marriage in Early Arabia, p, 208 인용.

51) Bough J (2011): 같은 책, p18.

마련이다. 예를 들어 볼위크(Borwick R)⁵²⁾은 당나귀의 지능이 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반박을 한다.⁵³⁾ 유화에 따라 임금님 귀가 말 귀로, 당나귀 귀로 상징되는 문화적 배경은 다를 수 있겠으나, 당나귀가 말과 입을 고려할 때 상징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임금님의 당나귀 귀는 ‘신성한 힘의 원형’, 주권(主權)의 표식이자, 왕권의 상징인 훔(笏)이라고 볼 수 있다. 당나귀 귀로 상징되는 가장 월등한 감성과 깊은 감정을 갖는 예민성으로 자연의 언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 임금님은 압도적인 신성, 우주적인 힘, 무의식과 본능의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임금님은 당나귀 귀를 수치스럽게 여겨 관(冠)으로 감추었지만 이발사가 당나귀 귀를 발견하게 된다, 임금님은 기이한 신체(귀)상의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 이발사를 죽이거나, 죽인다고 위협을 한다—유화에 따라 관(冠)은 두건(頭巾), 프리기아모자, 황금왕관으로, 이발사는 머리 빗기는 사람, 신하, 노예로, 당나귀 귀는 말귀, 큰 귀, 뿔로 표현된다

임금님이 귀를 감추려고 쓰고 있던 “관(冠)은 머리에 쓰는 쓰개를 통틀어 이르던 말”⁵⁴⁾로 모자와 같은 것이다. “프리기아 모자는 ‘자유의 모자’라고도 불리며 자유와 고귀함을 상징한다.”⁵⁵⁾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름에 걸맞는 황금왕관으로 감춘다. 용에 의하면 “모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서 대개 머리를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어떠한 개념의 통합을 말할 때 모든 개념을 하나의 모자 밑으로 가져온다’고 하듯이, 모자는 일종의 상위 표상과도 같이 전체 인격을 감싸고 있으며 그 인격에 자체의 의미를 전해준다.”⁵⁶⁾ 민담을 꿈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본다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모자로 감추었다’라는 것은 제시부, 혹은 문제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치료 첫 시간의 꿈(Initial Dream)으로 볼 수도 있다. 치료 첫 시간의 꿈이 꿈꾼 이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52) Bough J (2011): 같은 책, p18에서 인용.

*볼위크(Borwick R) “People with Long Ears”의 저자.

53) Bough J (2011): 같은 책, p19.

54) 동아출판사 편집국, 이기문 감수 (1994):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p213.

55) Cooper JC, 이윤기(역) (2014): 같은 책, p271.

5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융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p63.

전개과정, 전망을 나타낸다는 상정을 해 보면, 관(冠), 모자, 왕관이 전체 인격의 통합을 나타내며, 그 안에 감추어진 당나귀 귀가 왕의 중요한 본래 인격(본성)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란 결국 자기의 전체의 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융은 이것이 “인간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필연적 요구”라고 본다.⁵⁷⁾ 융에 의하면 이러한 개성화(자기실현)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교적 과정”이며, “이에 적합한 종교적 자세를 요구”한다. 즉 “자아 의지는 신의 의지에 순종한다”.⁵⁸⁾ 개성화 과정의 도상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집단정신(페르조나)과 나의 삶의 목표를 구별하는 것인데 집단적인 종교적, 윤리적 사고방식은 한 개인이 내적 진실과 반응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비밀로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는 경우 파괴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으로 개성화 과정을 저해하는 것들에 노출시키지 않는 신중함이 중요하다.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와 내담자는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함으로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며, 분석의 모든 과정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새로운 인격은 깊은 우울과 고독 속에서 탄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⁹⁾ 그러나 만일 내면에서 그 경험을 드러내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그렇게 할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꿈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준다. 비밀을 누설해야 할 때와 그것을 숨겨야 할 때는 자기(The Self)가 결정한다.⁶⁰⁾ 본 민담에서 왕이 자신의 당나귀 귀에 대해 숨기려고 했던 것은 당나귀 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본 유희에서 신하(이발사)는 머칠에 한 번씩 임금님의 머리를 빗긴다. 머리카락은 생명력, 힘, 활력, 머리에서 생기는 생명 물질, 사고력, 남성의 활력을 나타내며, 고도의 능력이나 영감을 가리킨다.⁶¹⁾ 머리카락은 몸의 분비물과 외부의 물질로 오염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소에 주기적으로 머리를 감고, 빗질

57) Jung CG (1954): CW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1641.

58)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82.
주93) 재인용, C.G.Jung, Briefe III, p503.

59) Von Franz ML (1980): *Alchemy*, Inner City Books, p162.

60) Von Franz ML (1992): 같은 책, p197.

61) Cooper JC, 이윤기(역) (2014): 같은 책, p154.

하고,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자르는 등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자라나는 생각들 중에서 헝클어진 생각들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쓸모없는 생각들은 잘라내야 할 것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은 잘 길러야 할 것이다. 머리카락을 사고력으로 볼 때, 머리를 빗기는 것은 빗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다스리는 것, 즉 머리로부터 나온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돈하고, 분명하게 하고, 의식화하는 것이다.⁶²⁾ 이발을 하는 행위는 기원전 5000년 이집트에서 조개껍질로 만든 도구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이발사는 매우 존경을 받던 당시의 사제나 의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다.⁶³⁾ 마야, 아즈텍, 이로쿠스, 바이킹, 몽고의 문화는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면도 예술 (shave art)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고라에서 머리카락, 수염, 손톱을 다듬었는데, 그 장소는 가십이나 토론장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발은 공동 목욕탕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아침에 들리는 장소가 되었다. 매일 새로운 뉴스나 가십을 듣기 위해 찾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발소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성인식에서 거행되는 짧은이의 첫 번째 삭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일부 로마의 이발사들은 부유해졌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중세에 이발사들은 외과나 치과 의사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머리를 다듬어 주는 외에, 수술, 사혈(bloodletting), 발치, 관장, 부항을 하게 되면서 “이발사 외과의(Barber surgeon)”로 불리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발사가 당시 사제나 의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성인식과도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⁴⁾

“많은 민족이 머리를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머리에 특별히 신성함을 부여하는 것은, 위해나 무례한 행동에 아주 민감한 영혼이 머리에 들어있다는 신앙으로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⁶⁵⁾ “시암족은 ‘쿠안(khuan)’ 또는 ‘쿤(kwun)’이라고 하는 정령이 사람의 머릿속에 거주하며, 사람의 머리를 수호하는 정령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령은 갖가지 위해로부터 조심스럽게 보호를 받아

62)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p216.

63) Moler AB (1928): *The barber's manual*, internet Archive; Digital Library of Free Books, Movies, Music & Wayback Machine. The National Education Council of the Associated Master Barbers of America, 1, Jan. 1928, Web.19 March 2012.

64) Kusku EA (2022): “Examination of Scientific Resolution Medicine on the Human Body”, <http://www.academia.edu/87500649>.

65) Frazer JG, 이용대(역) (1994):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서울, p253.

야 한다. 그래서 면도를 하거나 머리를 깎는 행위에는 무수한 의식이 따른다.”⁶⁶⁾ “머리가 매우 신성하여 그것을 건드리기만 해도 중대한 죄악이 된다고 할 때, 머리를 깎는 일이 매우 미묘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음은 명백하다.”⁶⁷⁾ 그러한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신성한 인물은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⁶⁸⁾

폰 프란츠의 설명에 의하면, 용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면도하는 것(shaving)을 자주 머리 가죽을 벗기는 것(scalping)과 연결시키곤 했다고 한다. 머리 가죽을 벗기는 것은 가죽 벗기기와 관련이 있는데, 인간의 변환을 상징하며, 뱀이 허물을 벗는 것에 비유된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피부를 벗어던지고 새로 워지는 것이다.⁶⁹⁾ 살가죽 벗기기 의식들은 일반적으로 나쁜 상태에서 보다 좋은 상태로의 변환, 따라서 갱생과 부활의 의미를 가진다.⁷⁰⁾ 따라서 부분적인 가죽 벗기기인 머리 가죽 벗기기는 영적 변환을 의미한다.⁷¹⁾ 용의 설명에 의하면 고대로부터 머리를 면도하는 것(shaving the head)은 영적변환이나, 입문식과 관련되어 신성시 되었다-중략-원시적 사고에서 유래된 삭발관례(the custom of tonsure)는 의식에 참여하는 이발사(ritual barber)를 전제로 한다.⁷²⁾

폰 프란츠는 페르시아의 민담 공허의 성(The Bath Badgerd-the castle of nothingness)의 해석에서 이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담의 주인공 하팀(Hatim)은 사막에서 이발사를 만나게 된다. 이발사는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거울을 주인공에게 보여준다. 거울은 하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자기인식(self-knowledge)으로 이끌기 원하는 이발사의 의도가 담긴 상징이다. 이발사는 무시무시한 장소로 하팀을 인도한 후 그를 운명에 맡기고 떠나는 자다. 폰 프란츠는 위의 민담이 연금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발사를 입문사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³⁾

66) Frazer JG, 이용대(역) (1994): 같은 책, 같은 페이지.

67) Frazer JG, 이용대(역) (1994): 같은 책, p254.

68) Frazer JG, 이용대(역) (1994): 같은 책, p255.

69) Von Franz ML (1990): 같은 책, p119.

70)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8): C.G. 용 기본저작집 제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p200.

71) Von Franz ML (1990): 같은 책, p119.

72) Von Franz ML (1990): 같은 책, p120.

73) Von Franz ML (1990): 같은 책, pp118-120.

이발사 상징의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위해 이발사와 관련된 용의 언급을 잠시 살펴보겠다. 용은 “초시모스의 환상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물을 하나이자 같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발사로 상징된다.”⁷⁴⁾ 연금술 ‘비의’를 다룬 문헌으로 1616년에 나온 “화학적 결혼”에도 이발사가 나온다. 이 책에서는 “영웅이 비밀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발사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삭발식과 유사한 의식이 벌어진다. 여기서도 삭발은 입문식과 변환과정이라는 의미를 동반한다.”⁷⁵⁾

이상 살펴본 바 폰 프란츠의 민담 ‘공허의 성’에서 이발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무시무시한 운명에 주인공을 맡겨서 변환으로 이끄는 자이다. 초시모스의 환상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 제물, 이발사는 하나이자 같은 것으로 변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발사를 죽일 것이 아니라 살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본 민담에서 당나귀 귀의 왕은 이발사를 얼마나 죽였는지 모를 때까지 죽이다가 남을 이발사가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다. 그렇게 많은 이발사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왕의 당나귀 귀는 집단의 지배의식에 수용되기 어려운 낯선 어떤 것, 의미를 모르는 새로운 요소로 볼 수 있겠다. 의미를 모르는 새롭고 낯선 것은 의식에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압되기 마련으로 의식화되어 집단의식에 통합되기 위하여는 무의식에서 내적 변환의 오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민담은 원형적 꿈처럼, 그저 천천히 진행되는 집단적 무의식의 변환과정을 반영하므로 그런 깊은 형성물의 의미가 의식에 침투해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민담의 기원은 대략 300년의 여유를 두고 정해질 수 있다.”⁷⁶⁾ 많은 이발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무의식에서 내적 변환이 집단의식에 통합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본 민담은 왕이 이발사를 죽이거나, 죽인다고 협박을 하지만, 반대로 이발사에 의해 왕이 살해되는 이본도 있다. 이본에서 살해되는 왕은 당나귀 귀가 아닌 말 귀나 뿔을 가진 군주, 혹은 술탄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크루크(W. Crooke)의 영국 판(板)⁷⁷⁾에 의하면, 황량한 바위로 덮힌 칸(Karn)

74) Von Franz ML (1990): 같은 책, p119.

7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8): 같은 책, p201.

76)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p179.

77) Crooke W (1911): “King Midas and His Ass’s Ears,” *Folklore*, 22(2), pp186-187.

지역을 다스리던 말의 귀를 가진 군주 지그너(Seigneur)는 신하들을 학대하기로 유명했다. 어느날 로스투안(Losthouarn)이라는 이름의 용기있는 젊은 이발사가 차출되었다. 그는 왕의 말귀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동료 이발사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챈 후 기회를 보아 예리한 칼날로 왕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그 이발사가 왕의 호위병들 사이로 나갈 때, 누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놀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왕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의 호위병들조차 놀라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이 유화에서 젊은이가 군주의 뒤를 이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동료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으로 끝난다. 왕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황폐한 정신세계를 고집하고, 변환을 거부하는 경우 새로운 정신과 용기가 있는 젊은 이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새로운 정신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유화에서 알 수는 없지만, 사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왕의 머리를 벨 담력을 가진 젊은 이발사가 아닐지 추측을 해 볼 따름이다.

이발사에 의해 왕이 살해당하는 또 다른 크루크(Crooke W)의 이본은 모로코판(版)인데,⁷⁸⁾ 유대인에 의해 강제로 잡혀온 남매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매를 납치한 유대인은 고관직을 약속받고 술탄에게 아름다운 소녀를 넘겼다. 플루트를 잘 부는 소녀의 오빠는 누이의 권유로 술탄의 이발사가 되었는데, 술탄의 머리에 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설할 경우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발사가 갈대 플루트를 연주할 때, 음악 대신 ‘술탄은 뿔을 가지고 있다’라는 노래가 나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누이는 술탄을 회유하여 자기의 오빠에게 이발을 시키게 하였고, 오빠는 술탄의 목을 베고, 유대인 고관을 죽인 후, 왕국을 그의 손에 넘겨 준다. 왕국은 갈대 플루트를 잘 연주하는 이발사에게 넘겨진다.

3. 이발사는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병이 되어 깊은 산 중에 들어가 구덩이를 파고 비밀을 털어놓은 후 흙으로 메운다. 혹은, 대숲 가운데 들어가 대나무를 향해, 혹은 들판의 깊게 파인 우물 에 비밀을 털어놓은 후 병이 낫는다

이발사는 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병이 된다. “말하든 죽겠으니 못 하고, 아 그놈에게 병이 되어가지고 앓고 있는단 말야. 하고픈 말 못 해서, 그래 죽게 되어가니까니” 그런데 아들들이 아무 의사를 갖다 대

78) Crooke W (1911): 같은 잡지, p189.

도 못 고치고, 의사들은 ‘근심으로 난 탈이기 때문에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발사는 인적이 드문 자연으로, 깊은 산, 혹은 숲으로 들어간다. “산은 하나님의 하강처이자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며, “하늘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띤다. 또한 “산은 여성 원리와 관련된 풍요와 공동체의 삶을 위한 어머니의 품을 상징한다”. 한국인의 주거지에 대한 위상에서 산은 절대적이다. 고개나 재, 영(嶺)도 같은 속성을 가진다. 이는 “산이 한 지역의 내(內)다움을 확보해 줌과 함께 그 너머의 다른 세계에 이르는 통로, 또는 관문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고대의 중국인의 우주관에서 산은 황제와 같은 통치적 등위를 가지며, 우주의 질서와 지구성(持久性)을 상징한다”. “일본인들은 산을 신의 세계로 인식한다.”⁷⁹⁾

폰 프란츠에 의하면 “리하르트 폰 성 빅토르는 그리스도가 서 있는 산을 영적인 자기인식의 상징이라고 해석하였고, 예언자들의 영적인 지혜를 인도하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했다. 흔히 산은 또한 오랜 탐구의 목표, 영원으로 향하는 길의 통과지점을 의미하며, 또한 자기Selbst를 의미하기도 한다.”⁸⁰⁾ “숲은 사람의 시야를 제약하고, 길을 잃게 하며, 들짐승들과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만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숲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상징이다.”⁸¹⁾

이발사는 땅을 팔 기구인 팽이와 쇠스랑 다 가지고 간다. 팽이와 쇠스랑은 인간이 땅을 파기위해 만든 남성적인 도구, 의식의 산물이다. 남성적인 도구인 팽이와 쇠스랑 다 동원해서 어머니 대지인 땅에 구덩이를 파는데, 그 크기는 사람이 들어가 앉아도 안 될 정도로 깊은 구덩이어야 한다. 이발사는 그 구덩이에 혼자 들어가고, 아들들은 다 멀리 보낸다. 사람이 들어가 앉아도 안 될 정도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발사의 인격 전체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혼자라는 것은 철저히 내향화를 하는 것이다. 이발사는 ‘이제 내놓고’, 다시 말하면 비밀을 털어놓은 후 흠으로 메운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내밀한 비밀을 자연 속에 마련한 용기인 땅 구덩이, 우물 안에 내려놓고 병이 낫는다.

구덩이를 파서 땅에 구멍을 내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이다. 늙은 마녀들의 술, 연금술사들의 도가니는 땅의 구멍에 기원을 둔다. “땅의 구멍은 명백히 여

79)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pp397-399.

80)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p154.

81)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p153.

성의 생식기를 나타낸다. 그것은 생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요리-구멍(cooking-hole)이다. “요리과정은 창조와 변환의 상징”이다. 날 것으로 들어가, 새롭고 변환된 형태의 맛있는 요리가 된다.⁸²⁾ 창조와 변환의 상징인 땅 구덩이는 이발사에 의해 흙으로 메워진다. 연금술사들의 도가니가 밀폐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땅 구덩이를 무덤으로 볼 수 있다.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누웠다가, 음부의 권력을 이기고 영광 속에서 부활한다. 그 장소는 무덤이다.”⁸³⁾

우물은 위험한 물구멍인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우물은 생명의 물을 지닌 구멍이며, 무의식이다. 위험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물은 여성 원리, 태모의 자궁을 나타내고, 지하세계와 접촉하는 우물은 종종 치유력과 소원 성취의 힘을 가지는 마법의 물이 있다.” “크리스트교에서 우물은 구원과 정화의 상징으로 갖는다.”⁸⁴⁾ 어머니의 자궁, 연금술사의 솥, 우물,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왕의 고뇌로, 이발사에 의해 신중하게 땅 속 깊이 들어갔다. 고귀한 왕과 비천한 당나귀의 귀, 인간과 동물, 의식과 무의식, 정신과 자연이 들어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발사는 비밀을 털어놓은 후, 병이 낫는다. 크루크(Crooke W)의 자료중,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신하, 혹은 이발사의 배가 엄청난 크기로 커진다는 이본이 있다. 어느 이본의 신하는 땅 구덩이에,⁸⁵⁾ 다른 이본의 이발사는 땅 구덩이 대신 수도사에게,⁸⁶⁾ 비밀을 털어놓은 후 배의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융의 경험에 의하면, 대장 확장 때문에 40 cm의 대장을 잘라낸 후, 곧 남은 대장마저 현저하게 확대된 환자가 있었다. 숨어 있는 어떤 내밀한 심리학적 사실들을 환자가 드러내자 그의 직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했다고 한다.⁸⁷⁾ 꿈 분석을 하는 동안 내담자가 내밀한 심리학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꿈을 살피지만, 실제적인 내담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내담자가 그의 은밀한

82) Jung CG (1984): *Dream Analysis*, Bollingen series xcix,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31-332.

83)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8): 같은 책, p227.

84) Cooper JC, 이윤기(역) (2014): 같은 책, p400.

85) Crooke W (1911): 같은 잡지, p193.

86) Crooke W (1911): 같은 잡지, p195.

8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8): 같은 책, p24.

내용, 당나귀 귀를 모자로 덮고 있었기 때문에, 즉 당나귀 귀를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숨겨진 내용에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기회에 당나귀 귀가 드러나는 순간, 즉 내밀한 심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치료자가 내담자의 현실을 살피고, 심적 어려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분석현장은 자연, 산속, 숲에 땅을 파는 의식적인 노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발사가 비밀을 털어놓은 땅 구덩이, 무덤, 우물은 지하세계와 접촉하는 변환의 장소, 어머니의 자궁이다. 그런데 땅 구덩이, 무덤, 우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이 개입된 구조물이다. 인간의 의식이 개입된 땅 구덩이, 우물은 가톨릭 신자의 경우 고백성사에 해당할 수 있겠고, 현대인의 경우는 정신치료 중 고백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숨겨진 비밀이나 억제된 감정과 정동들을 토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화법을 통해 환자는 비밀스러운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치유적인 효과를 얻는다.⁸⁸⁾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샤머니즘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담자의 꿈에 나타나는 샤머니즘 관련 상징들 때문이다. 이부영에 의하면⁸⁹⁾ 무당이 신탁, 즉 공수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원형들이 가진 의도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무의식의 의식화로, “무의식에 뿌리를 내려 동물적 속성을 지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의식과 같은 오성을 갖춘 사람과 동물의 결합체야말로 그러한 무의식의 심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의식에 전달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만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으로, 공수를 하지 못하면 무당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왕의 당나귀 귀는 의식과 같은 오성을 갖춘 사람과 동물의 결합체로, 무의식의 원형들이 가진 의도를 인식하고 무의식의 심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민담에서는 다른 유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발사의 이발들이 나오는 게

88) Jung CG (1966):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55.

89) 이부영 (2015):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p117.

특이하다. 아마 이발사가 고령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병세를 염려하여 의사를 갖다 대거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중에 데리고 가 달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들이다.

유화 1)의 당나귀 귀만한 귀를 가진 왕에서도 죽기 전에 노모를 한 번 만나 보고 죽겠다는 상투 찌는 사람의 청에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다. 두 민담에서 당시 시대적으로 효를 중시하던 한국의 유교문화를 엿볼 수 있겠다.

4. 그 자리에 갈대, 혹은 대나무가 자라나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난다. 혹은 그 자리를 지나던 사람이 자라난 갈대 혹은 대나무를 발견하고 피리를 만들어 부니, 음악 대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서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비밀이 폭로된다

이발사를 통해서 땅 구렁이에 들어간 것은 고귀한 왕과 비천한 당나귀의 귀, 인간과 동물, 의식과 무의식, 정신과 자연인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이고, 얼마 후 구렁이에서 자란 것, 창조와 변환의 산물은 갈대, 혹은 대나무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대나무가 비밀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고, 갈대나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피리, 혹은 단소가 비밀을 폭로하기도 한다.

갈대는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갈대라는 이름은 대나무와 유사한 풀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되며 습지나 갯가 또는 호수 주변의 모래땅에 흔히 군락을 이루고 자란다.⁹⁰⁾ 역새와 달리 갈대는 물가에 자라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선, 즉 통과지점인 여울가”⁹¹⁾에 산다고 볼 수 있다. 이집트에서 갈대는 신神 하피(Hapi)의 머리 위에 있는 풀(파피루스)로서 풍요를 가져오는 나일강을 나타내고, 그리스에서는 갈대가 목신 판의 표지로 음악, 조화의 상징이다. 크리스티교에서는 갈대가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중국에서 갈대는 번영하는 통치의 상징이다.⁹²⁾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대는 식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갈대가 없는 곳은 최악의 빈곤이다”라는 수메르의 격언이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식물이었다. 흔히 가축사료와 연료, 오두막, 수로, 배

90)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우철: ‘갈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91) Jung CG, 한국용어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6): C.G. 용 기본저작집 제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p265.

92) Cooper JC, 이윤기(역) (1978): 같은 책, p288.

의 건설, 매트와 바구니를 만들거나, 심지어 점(divination)을 치는 데도 사용되었다. 또한 갈대는 고대에 파이프와 플루트를 만드는 기본재료였는데, 파이프와 플루트는 기본 관악기로 단일, 혹은 이중의 갈대로 구성된다. 갈대는 그 의미와 기능의 복잡성으로 수많은 신화적, 문학적인 은유로 전달되었다.⁹³⁾ 필리핀 신화에서 시칼락(Siikalak)과 시카베이(Sikabay)라는 최초의 남녀는 갈라진 대나무 갈대(split bamboo reed)에서 나왔다.⁹⁴⁾

이집트에서 큰 의미를 갖는 ‘갈대’라는 상형문자는 “이집트의 왕과 호루스, 새로운 태양, 재생된 태양신, 이집트의 새로운 왕 등 새로 태어난 모습의 왕”을 나타낸다.⁹⁵⁾ 많은 민담에서 갈대는 그들 사이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간에게 신성한 지혜를 드러내거나 가져다 주는 등, 비밀의 지식을 드러내기도 한다.⁹⁶⁾ 우리는 비밀의 지식을 드러내는 갈대에 대한 이야기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⁹⁷⁾와 창조 및 홍수 서사시인 바빌론의 Atrahasis 서사시⁹⁸⁾에서

93) Kleczkowska K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tif of the Reed in the Mesopotamian myth of the flood and the Greek myth of King Midas,” *Ex Nihilo*, Vol.8, (Dec.2012), p93.

94) David GA (2017): “The sacred meaning of the Reed: from Houses and Boats to rituals, ceremonies and portals,” <https://www.ancient-origins.net-008553>, p7.

95) Von Franz ML, 이도희(역) (2020): 《황금당나귀》, 한국웅연구원, 서울, p124.

96) Von Franz ML, 이도희(역) (2020): 같은 책, pp124-125.

97) Sandars NK, 이현주(역) (2016), 《길가메시 서사시》, 범우사, 서울, pp93-94.

“엔릴이 참다못해 신들에게 말했다. ‘인간들의 반란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구나. 소란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으니.’ 그러자 신들은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엔릴이 이 일을 맡았지. 그런데 예아가 꿈에 나타나 이 사실을 내게 신탁을 통해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는 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나의 갈대 집에 대고 속삭였다. ‘갈대 집아, 갈대 집아! 답아, 오 답아! 귀를 기울여라, 답아, 대답하여라. 오, 갈대 집아! 우바라투투의 아들, 슈르루팍의 사람아, 네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살 길을 찾아라.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네 영혼을 구해라. 거둬 이른다. 네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라.’”

98) Kleczkowska K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tif of the Reed in the Mesopotamian myth of the flood and the Greek myth of King Midas,” *Ex Nihilo*, 8 (Dec.2012), p93. 위대한 신 ‘엔릴Enlil’은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려는 시도를 한다. 또 다른 신 엔키Enki는 인간들이 홍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배를 만들도록 왕인 Atrahasis(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조언을 했다. 인간들에게 홍수에 대한 경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른 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했던 신 엔키Enki는 갈대 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벽아, 들으라! 갈대 벽아, 내 말들을 모두 지켜보아라! 네 집을 헐고, 배를 만들어라, 부를 물리치고(spurn property) 생명을 구해라(save life)” 엔키는 개인적으로 인간 Atrahasis에게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갈대 벽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신들과의 맹세를 깬 것이 아니었다.”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 안에는 억제할 수 없는 진실의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은 척 할 수는 있어도 무의식에 남는다. 휘파람 부는 갈대는 무의식에서 얻는 작은 단서인데, 낮지만 억제할 수 없는 그 목소리는 불편감이나 양심 불량 등으로 스스로 드러낸다. 상황이 나빠져 무의식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러 해 동안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다. 천둥소리로 파국이 오기 전에 갈대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⁹⁹⁾

일본 교토에 있는 Ujigami 신사(神社)의 축제 기간 중 제례의식에 사용되는 횃불(cultic torches, taimatsu, 松明)은 수 미터에 달하는 갈대와 대나무로 만들어진다. 제의에 사용되는 이 건축물(cultic buildings)은 일시적인 신들의 자리(temporary seats of gods)로 축제가 끝나면 불태워진다. 전 세계의 문화권은 속이 빈 갈대라는 식물과, 그들의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갈대 장소”를 특정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¹⁰⁰⁾

대나무는 벼과(Poaceae) 대나무아과(Bambusoideae)에 속하는 상록성 식물의 총칭으로, ‘대’라고 약칭하기도 하며 한자어로는 죽(竹)이라고 한다.¹⁰¹⁾ 대는 번성하는 푸르름, 번식력이 강한 상록이라는 점에서 소나무와 비견되는 영생과 불변을 상징하고, “신을 부르거나 내리게 하는 신대로 사용되며, 신령의 집, 신령의 통로, 등을 상징한다.” “신령의 힘, 능력, 위엄, 등과 관련된 그 상징성은 신내림의 대떨림에 의해 구상화된다.”¹⁰²⁾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남부에 거주하는 마키리타 부족은 대를 제의의 신

99) Von Franz ML, 이도희(역) (2020): 같은 책, pp124-125.

100) Blummel MV (1984): “Sacred symbols of reed and bamboo. annually built torches as spatial signs and symbols. a study of the building traditions of the “ujigami” shinto rituals as practiced around the town of omihachiman in japan by Nold Egenter” Asian Folklore Studies, Nanzan university, 43(1), pp151. JSTOR, www.jstor.org/stable/1178109.

*Nold Egent is Architect ETH& building ethnologist로 4년간(1972-1976) 일본 Omihachiman town 주변에서 시행되는 Ujigami Shinto의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01)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10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pp203-204.

성한 악기로 사용하는데, 이 제의에서 대는 “우주의 나무 또는 생명의 나무로서, 부족의 시조가 항상 곁에 두고 있던 나무로 간주된다.”¹⁰³⁾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대나무이다. 혹은 갈대, 대나무로 만든 악기(피리, 단소)를 불 때 비밀이 폭로된다. 두 경우 모두 바람, 호흡과 관련이 있다.

우주의 구성을 동적으로 관찰함으로 형성된 고대인의 인식에서 본다면 바람(風)은 “하늘의 기운, 우주의 숨과 기운”을 상징한다. 또한, 풍수라는 관점에서 바람은 “자연의 기운”을 상징하며, “사람의 운세에까지 끼치는 우주의 숨기운”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서양에서 인식하는 바람의 상징성은 매우 다양해서 허무, 불안, 변화와 함께 폭력, 맹목성, 저돌성 등으로 인식될 만큼 가변적이다. 또한, 풍요의 숨결, 성스러운 정신 등을 의미하는 바람은 종교성을 띠는 “신의 말, 우주의 기(氣)를 상징함”으로 종교성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氣)와도 통한다.”¹⁰⁴⁾

종교적, 신화학적인 것과 관련해서 “바람은 영(Geist)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성령이 엄청난 바람처럼 그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령강림기적’에 대해 말한다. “귀령들은 일반적으로 공기, 혹은 차가운 바람을 동반한다.” 단어 스피리투스(spiritus)는 스피라레(spirare), 호흡하다(atmen)와 같다.¹⁰⁵⁾ 바람은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의식의 빛을 꺼버릴 수 있다.¹⁰⁶⁾ 신약성서에서 바람과 영은 둘 다 같은 말, 프뉴마pneuma로 표현된다.¹⁰⁷⁾

“피리는 조화를 상징하며, 목신 판은 자연계 전체의 조화를 나타낸다. 피리는 반인반수의 신 사티로스의 부수물이다.”¹⁰⁸⁾ 마이다스 왕이 숭배하는 가축의 신 판(Pan)은 시린크스 요정이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시린크스는 건너갈 수 없게 되어있는 라돈 강에 와서 그곳 님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님프들은 그녀를 갈대로 변신시켰다. 강가에 온 판은 그 갈대로 피리

103)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1》 같은 책, p207.

104)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1》 같은 책, pp301-304.

105)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18): 같은 책, 87페이지.

106) Von Franz ML (1997): *Archetypal Patterns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p92.

107) Jung CG (1984): 같은 책, p220.

108) Cooper JC, 이윤기(역) (2014): 같은 책, p274.

를 만들어 이 피리에 시린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¹⁰⁹⁾ 힌두교의 영웅 신 크리슈나의 피리는 ‘시간 속에 머무는 것들에게 외치는 영원의 소리’이다.”¹¹⁰⁾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대나무이고, 호흡으로 불어서 연주하는 악기인 피리, 단소이다. 바람이 없으면 갈대나 대나무도 소리를 낼 수 없다. 피리, 단소도 호흡으로 불어서 연주를 해야 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폭로하는 자는 바람, 호흡, 영이다.

대부분 종교 제도에는 물, 불, 어떤 식물 등, 신성한 물질들이 있다. 영(Spirits), 악마(Demons), 육화된 신들은 인격화되어 비전(vision)을 말할 수 있거나, 반 인격적 양상(half-personified aspects)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기독교 예술 작품에서 성부와 성자는 인간으로 묘사되는 반면, 성령은 수염이 난 노인이나 동물로 인격화되는데, 불, 바람, 물, 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호흡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성경에서조차 성령은 불, 물, 호흡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흔히 묘사된다. 폰 프란츠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신상은 무의식이 원형적 명시로 나타나기 위해 간혹 자연현상으로, 때로는 인격화된 모습을 만든다는 가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¹¹¹⁾ 갈대와 바람, 호흡은 무의식의 원형적 명시로 나타나기 위한 자연현상인데, 사람의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미루어 반인간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성령으로 볼 수 있겠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대나무에 의해 혹은 갈대,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 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사실이 선포된다. 신의 소리로 선포된 것으로 미루어 ‘당나귀 귀’는 신이 왕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치스러웠던 당나귀 귀는 신에 의해 인정됨으로 더이상 수치가 아니라 왕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5. 임금님은 자기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여겼는데, 자신의 당나귀 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죽임을 당한 전임자들과 달리 본 유화의 이발사는 충신으로 인정을 받고 살게 된다. 유화 1)에서는 이발사가 큰 상을 받는다. 경문대왕, 마이다스 왕 등 유화에 따라 이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109) Grant M & Hazel J, 김진옥(역) (1993):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범우사, 서울, p151.

110) Cooper JC, 이윤기(역) (2014): 같은 책, p142.

111) Von Franz ML (1980): 같은 책, pp27-28.

낮 설고 수치스러워 모자로 가리고 다녔던 왕의 당나귀 귀는 이제 왕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다. “황금 당나귀”의 루시우스가 겪은 불운이 실은 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바로 그 불운을 준 신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¹¹²⁾과 마찬가지로, 왕에게 당나귀 귀를 준 것은 신이었고, 신에 의해 그 사실이 선포됨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홀(笏)의 지위를 되찾게 된 것이다. 이제 왕은 당나귀 귀와 하나가 되었고, 전체가 되었다. 이발사에 의해 발견되어, 땅 구덩이에 들어간 비밀이 바람에 부는 갈대에 의해 폭로되지 않았다면 임금님은 자신의 당나귀 귀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이발사가 죽임을 당하고 있었을 것인데, 임금님이 계속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누구인지 모르고 지낸다면, 앞의 일부 이본에서와 같이 이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포도나무의 비유¹¹³⁾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가 베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제 과거에 이발사들을 죽여 버렸던 절대군주가 지혜로운 왕으로 변한 것이다. 정신치료 과정 중 변환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짐으로 치료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¹¹⁴⁾ 왕이 무의식에서 진행된 창조적인 작업으로 변환과정을 통해 동물성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의식화함으로 치료되어, 집단의 질서가 새로워진 것이다.

결 어

본 민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 경문대왕 설화에 등장한 이래, 최남선이 1929년 발행한 괴기(怪奇) 창간호에서 “신라의 ‘경문왕’과 희랍의 마이다스왕”¹¹⁵⁾을 소개하고 전파설을 주장한 바 있고, 스코비(Scobie A)를 통해 1977년 세계학회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112) Von Franz ML (1992): 같은 책, p173.

113)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1978): 요한복음 15:1-2.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114) Jung CG (1966): 같은 책, p69.

115) 조희웅 (1996): 같은 책, p333.

*최남선 (1929): “신라의 경문왕과 희랍의 ‘미다스’왕”, 《괴기》, 1(1929,5). 동명사, 경성, pp42-45. 재인용.

동서고금을 통해 전해져 오는 이 민담은 등장인물이 왕과 이발사뿐으로, '임금님의 당나귀 귀'가 이발사에 의해 발견되고, 그 비밀을 발설하지 못해 병이 난 이발사가 깊은 땅 구덩이에 비밀을 털어놓고 흙으로 덮지만 그 자리에서 자라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비밀이 폭로된다는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이해해 볼 때, 왕의 '당나귀 귀'는 사람과 동물의 결합체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들이 가진 의도를 인식하고, 무의식의 심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왕의 '당나귀 귀'는 삶의 흐름에서 잃어버린 근원적 감정과의 비합리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발사는 영적 변환과 관련된 상징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드러내는 신과 관련된 상징으로 왕이 만물의 소리를 듣고 변환되어 하나이자 전체가 되어야하는 것은 신의 뜻이었던 것이다.

인간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의식성이 대극을 구별하게 되면서 무의식성을 뿌리치게 된 결과 인간은 그의 무의식, 본능의 세계와 결별하게 되었다.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려할 때 존재할 수 있다. 융에 의하면 "변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무엇이 그에게 비의를 재현할 수 있게 하는지 평범한 인간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¹¹⁶⁾ 인간은 생명의 원리이자 법칙인 동물적 리비도, 즉 "분리되어있던 본능성의 재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겪어야 하고, 하나의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하는 것"이다.¹¹⁷⁾ 그 이유는 어떤 것도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 둘은 처음부터 하나였으며, 마지막에도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¹¹⁸⁾

본 민담은 왕의 '당나귀 귀'로 상징되는 '동물적 본능'의 인식과 통합, 본성의 소리를 듣는 것, 즉 개인의식이나 집단적식에서 평가 절하된 동물적 측면의 가치를 인식 통합하고 본성의 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동물적 본능적 측면이나 본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숨겨져서는 안 되며, 인식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객체정신(objective psyche)의 목적의 미가 이 민담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왕이 본능의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 무의식에서 진행된 창조적인 작업으로 변환과정을 통해 동물성

11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8): 같은 책, p229.

11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8): 같은 책, p58.

11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219.

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의식화함으로 치료되어 집단의 질서가 새로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체의 정신적 총체이며 역설적으로 또한 전체 집단적 무의식의 조절 중심을 나타내는 자기(Self)는 인간 의식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너무 멀리와 버려 잃어버린 인간의 근원적 층과 하나가 되는 변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같다.

참 고 문 헌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1978).
- 동아출판사 편집국, 이기문(감수) (1994):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_____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 _____ (2015):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 _____ (2002):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이유경 (2012): “한국 민담에 나타난 대극의 합일”, 《심성연구》, 27(1, 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일연, 김원중(역) (2018): 《삼국유사》, 민음사, 서울.
- 임석재 (1990): 《한국구전설화》, 임석재전집 6, 충청북도, 충청남도 편. 평민사. 서울.
- 조희용 (1996):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 _____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엮음) (1981-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 Apuleius L, 송병선(역) (1999): 《황금당나귀》, 시와 사회, 서울.
- Blummel MV (1984): “Sacred symbols of reed and bamboo. annually built torches as spatial signs and symbols. a study of the building traditions of the ‘ujigami’ Shinto rituals as practiced around the town of Omihachiman in Japan” by Nold Egenter. *Asian Folklore Studies*, Nanzan University, 43(1), pp151. *JSTOR*, www.jstor.org/stable/1178109.
- Bough J (2011): “The Mirror has two faces: Contradictory reflections of Donkeys in western Literature from Lucius to Balthazar”, *Animals*, 1(1), <https://doi.org/10.3390/ani1010056>.
- _____ (2011): *Donkey*, Reaktion Books LTD, London.
- Cooper J, 이윤기(역) (2014):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 Crooke W (1911): “King Midas and His Ass’s Ears”, *Folklore*, 22(2).
- Curtis VS, 임웅(역) (2013): 《페르시아 신화-대영박물관 신화 총서》, 범우사, 서울.
- David G (2017): “The sacred meaning of the Reed: from Houses and Boats to rituals, ceremonies and portals,” <https://www.ancient-origins.net-008553>.
- Elder GR (1996): *The Body-An Encyclopedia of Archetypal Symbolism*, Shambhala, Boston & London, <https://Columbia.acadeia.edu>.
- Frazer JG, 이용대(역) (1994):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서울.
- Grant M, Hazel J, 김진옥(역) (1993):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범우사, 서울.
- Hannah B (2006):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Wilmette.
- Jung CG (1954):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6):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4): *Dream Analysis*, Bollingen series xcix,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2): C.G. 융 기본저작집 제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5): C.G. 융 기본저작집 제7권, 《상징과 리비도》,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8): C.G. 융 기본저작집 제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6): C.G. 융 기본저작집 제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 Kusku EA (2022): “Examination of Scientific Resolution Medicine on the Human Body”, <http://www.academia.edu/87500649>.
- Kleczkowska K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tif of the Reed in the Mesopotamian myth of the flood and the Greek myth of King Midas,” *Ex Nihilo*, 8 (Dec.2012).
- Moler AB (2012): *The barber’s manual*. *internet Archive*; Digital Library of Free Books, Movies, Music & Wayback Machine. The National Education Council of the Associated Master Barbers of America, 1, Jan. 1928. Web.19 March 2012.
- Paul Radin (1972):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 Sandars NK, 이현주(역) (2016): 《길가메시 서사시》, 범우사, 서울.
- Scobie A (1977): “A Korean Midas Tale”, *Folklore*, 88(1), <https://doi.org/10.1080/0015587X.1977.9716055>.
- Von Franz ML (1980): *Alchemy*, Inner City Books, Toronto.
- _____ (1990):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2): *The Golden Ass of Apuleius*,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7): *Archetypal Patterns in Fairy Tales*, Inner City Books, Toronto.

_____ 이부영, 이광자(역) (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_____ 이도희(역) (2020): 《황금당나귀》, 한국융연구원, 서울.

_____ 박영선(역) (2020): 《민담 속의 여성성》, 한국융연구원, 서울.

Shim-Sŏng Yŏn-Gu 2023, 38 : 1

〈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the Fairy Tale “The King’s Ass’s Ear’s”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Seungsub Lee, M.D., Ph.D.*

The fairy tale ‘The King’s Ass’s Ears’ is a simple story about a king and a barber. The king’s ‘Ass’s ears’ is discovered by the barber, who becomes sick due to his inability to reveal the secret. He eventually confesses the secret in a deep pit and covers it with soil, but a reed grows in that spot and reveals the secret when it sways in the wind. This fairy tale is registered in Stith Thompson’s narrative type AT 782 as ‘King Midas and His Ass’s Ears’, corresponding to a well-known story of King Gyeongmun in Korea, as it is published in elementary textbooks.

When something becomes conscious, its automatic mechanical tendency leads to obsolete and rigid. To avoid rigidity in our conscious life, we need continuous renewal via contact with the flow of mental events in our unconscious.

From the aspect of analytical psychology, the King’s ‘Ass’s ears’ enables irrational contact with the fundamental emotions lost in the flow of life. The barber symbolizes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the reed swaying in the wind symbolizes the revelation of secretive knowledge associated with the divine. The king can hear the sound of all creation and become one with it, which was the will of the divine.

The Self, as the psychic totality of an individual and paradoxically also represents the regulating center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ntinually seeks to merge and transform with the lost primal layer of humanity, which has now become distant and discarded du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onsciousness.

KEYWORDS : King’s Ass’s Ear; Instinct; Barber; Self; Transformation.

*Jungian Analyst, Seoul, Korea

□ 참 고 □

AT 782의 이본분석-조희웅(1996), 《한국설화의유형》, pp338-340

번호	지 역	기 형 인	기 형	목격자	장 소	생물	폭로물	자료 제공
1	고대 그리스(문헌)	Midas왕	당나귀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X	[A/B]
2	고대그리스(구전)(Zakynthos)	왕	염소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피리	[A/B]
3	고대 아일랜드(사본)	Labradh Loingseach왕	말 귀	이발사	길가	나무	하프	[A/B]
4	고대 아일랜드(사본)	Labraid Lorc왕	말 귀	이발사	길가	나무	하프	[B]
5	아일랜드	Labradh Loingseach왕	말 귀	이발사	길가	나무	하프	[A/B]
6	북웨일즈 (Castellmarch)	March Amheirchion	말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피리	[A/B]
7	웨일즈와 아일랜드	March ab Meirchion왕	말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피리	[B]
8	브리타뉴	Portzmarch왕	말 귀	이발사	강가	갈대	오보에	[A/B]
9	브리타뉴(arn)	Karn영주	말 귀	이발사	X	X	X	[A/B]
10	브리타뉴	Guivarc' h왕	말 귀	이발사	나무숲	갈대	피리	[A/B]
11	트리스탄전설(독일/프랑스)	Marke왕	말 귀	난쟁이	구덩이	덤불	X	[B]
12	네델란드(Westfriesland)	Richard Arunde왕	당나귀 귀	X	X	X	X	[A/B]
13	포르투갈(Coimbra)	왕	당나귀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피리	[A/B]
14	이탈리아(Abruzzen)	Re Caldore	당나귀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피리	[B]
15	타스코칸트(Ben-Slita)	왕	뿔(뿔)	이발사	샘가	갈대	피리	[B]
16	유고의 보스니아왕(Zabnik)	왕	돼지머리	이발사	물가	갈대	피리	[B/C]
17	세르비아	왕	염소 귀	이발사	구덩이	나무	피리	[A/B]
18	아르메니아(Zanguezour)	알렉산더왕	뿔(하나)	이발사	우물가	갈대	피리	[A/B]
19	남슬라브	Trojan왕	염소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피리	[C]
20	남슬라브(?)	Trojan왕	염소 귀	이발사	구덩이	나무	X	[C]
21	터키(동루멜리아)	Trojan왕	당나귀 귀	이발사	구덩이	갈대	?	[C]
22	마케도니아 (그리스북부: Nvrokop)	Trojan왕	염소 귀	이발사	구덩이	나무	X	[C]
23	레스보스	왕	뿔(하나)	이발사	구덩이	나무	X	[C]
24	루마니아	왕	염소 귀	이발사	구덩이	나무	X	[C]
25	북아프리카(모로코)	왕	뿔(뿔)	이발사	물통	갈대	피리	[A/B]
26	북아프리카(Berber인)	왕	뿔	이발사	샘가	갈대	피리	[A]
27	투르크스탄	왕	당나귀 귀	이발사	하늘	X	X	[A/B]
28	키르키즈(天山산맥)	왕	당나귀 귀	이발사	샘	X	X	[B]
29	페르시아	Shapur왕	뿔(뿔)	이발사	우물가	갈대	피리	[A/B]
30	인도북부(Gilgit)	Ra von Gilgi	당나귀 발	노신하	동굴	나무	피리	[A/B]
31	인도(Mirzapur)	Raja	뿔(뿔)	이발사	나무	X		[A/B]
32	인도(Santal)	Raja의 아들	황소 귀	이발사	수도사	X		[A/B]
33	인도(Mysore)	Virkama Raja의 아들	당나귀 귀(하나)	이발사	나무	X		[A/B]
34	몽고(Schwarz-China)	Daibang왕	당나귀 귀	시중꾼	동굴속	X	다랄취	[A/B]
35	한국	경문왕	당나귀 귀	복두장	구덩이	대숲	X	[S]

*[A]=Crooke, [B]=Lehmann-Nitsche, [C]=Vasmer, [S]=[삼국유사], X=없음.

기타 첨부자료

번호	지역	기형인	기형	목적자	장소	생물	폭로물	자료제공
36	한국	호필연왕	당나귀 귀	신하	구덩이	참대	단소	한국구비문학대계
37	한국	왕	당나귀 귀	상투쫓는 사람	고육나무흙통	나무들	나무꾼	임석재전집